

## 부모 의존도를 0%까지 줄여보세요



내적 동기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를 말합니다. 공부에도 이런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스스로 흥미를 갖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김준희 씨가 알려주는 내적 동기부여를 위한 세 가지 방법(자율성, 관계성, 역량 향상)을 소개해드립니다.

[※ 듣기 : 커리어넷>학부모용 오디오 진로정보 진로레시피]

**자율성**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을 양전히 먹기보다는 음식을 흘리고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스스로 먹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서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부모의 의존도를 100%에서 0%까지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관계성**은 좋아하는 교과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과목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성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덜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지나친 기대, 너밖에 없다는 말은 모두 관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부여를 위한 마지막 방법은 역량 향상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말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는 책을 하면 기뻐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자신이 설명한 것을 문제로 만들어 풀어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 과정을 통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격려를 통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부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격려는 해주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것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실수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수는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깨우쳐야 하는 과제일 뿐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아이들은 실수를 감추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평생 도움이 될 공부, 그 공부 실력을 키워주려면 부모님께서 먼저 실수에 관대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100m 달리기보다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자녀의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을 쓰지 않을 때는 시위를 풀어놓는 법입니다. 계속 시위를 당기면 정작 활을 쏘아야 할 때 탄력이 없어져 날아가지를 못하지요. 평소에는 자녀를 놀듯이 풀어놓아야 공부가 힘들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긴장할 때 긴장하고, 놀 때 놀고, 자기 자랑할 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해주며, 실수하더라도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시즌 5, 14~15회)

직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수요에 맞춰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이름의 직업일지라도 하는 일이 미래에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변화의 유연성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직업아, 너는 왜 변하니?]

#### ▼ 새롭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 제2의 완득이 교육설계 돕는 가이드 ‘다문화코디네이터’

우리나라 청소년 소설 중 큰 인기를 모은 『완득이』 속 주인공 완득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다.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문화코디네이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입국에서부터 입학 절차 안내, 학력 인정과 관련한 상담,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배치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자녀 전문 교육컨설턴트이자 교육가이드이다.

##### 입체영상을 활용한 전시·공연 연출기획가 ‘홀로그램전시기획자’

홀로그램이란 레이저 광선으로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를 묘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다양한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한 기술이 바로 홀로그램 기술이다. 홀로그램전시기획자는 홀로그램 원리인 홀로그래피를 공연, 전시 등에 활용하는 입체영상 연출가다.

최근 들어 2차원 평면에서 입체 효과를 볼 수 있는 3D 입체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홀로그램은 입체영상의 최종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형태의 입체감을 선사한다. 홀로그램은 공연장뿐 아니라 전시장 등 예술·공연 및 교육 분야에서도 두루 이용되고 있다. 특히 관람객과 상호 작용하는 실시간 홀로그램 전시관이 각광을 받고 있고, 4D 체험관에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 쓰이고 있다.

(출처 : 색다른 직업, 생생한 인터뷰)

#### ▼ 다문화코디네이터나 홀로그램전시기획자라는 직업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 왜 변화하고 새롭게 생겨나는지 생각해봅시다.

---



---



---

#### ▼ 현재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이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관심 직업	
30년 후 모습 그리기	
그렇게 생각한 이유	